# 미국, 남미 서부 에콰도르 병력 파견…"마약 차단"

### 동부 베네수엘라 인근 '작전' 동시 전개

미국이 남미 최대 마약 밀수 거점 중 하나인 에콰도르에 공군 병력을 일시 파견한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주에콰도르 미국 대사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미 공군 장병들이 에콰도르 공군과 함께 진행하는 임시 작전에 참여한다"며 "이 공동 노력은 정보 수집 및 마약 밀매 대응 능력 강화를 포함, 에콰도르 군의 마약 테러리스트 대응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적었다.

친미(親美) 외교 노선을 견지하는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 역시 엑스 게시글에서 "우리 군은 미군과의 공동 작전을 통해 마약 밀매 경로를 해체하며, 에콰도르를 장악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들을 제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번 파병은 남미 대륙 동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인 가운데 이뤄졌다. 에콰도르는 남미 대륙 서부에 있다.

미군 병력은 지난 2009년까지 약 10년간 미군 기지로 사용한 에콰도르 만타 공군기지에 배치될 예정이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난달 이 곳을 직접 찾아 인프라를 둘러보기도 했다.

에콰도르는 과거 만타에 미군 기지를 뒀다가 2008년 좌파 성향의 라파엘 코레아 전 정부 시절 '외국 군사 기지 설치 및 외국 군 주둔 금지'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을 했다. 미군은 이후 에콰도르에서 철수했다.

앞서 지난달 에콰도르 유권자들은 노보아 정부의 외국 군사기지 설치 시도를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거부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주에콰도르 미국 대사관은 이번 파병과 관련, "에콰도르 법률에 따라 현재 유효한 양국 협정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안보 전략의 하나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콰도르는 기예르모 라소 전 정부 시절인 2023년 9~10월에 불법적 초국적 해상 활동에 대한 공동 작전 전개를 위해 미국과 상호 협약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에콰도르 군은 자국 군사 인프라를 훈련장으로 제공하고 안보 목적의 물류 저장을 위해 미군이 에콰도르 내 군사 시설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현지 일간 엘우니베르소는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라틴아메리카 내 마약 밀매 조직 퇴치를 목표로 내세우며 압도적인 군사력을 기반으로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0순위' 표적으로 삼은 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다. 대규모 병력을 베네수엘라와 인접한 카리브해 일대에 배치하는 한편 제재 대상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전면 봉쇄하고 마두로 정권을 아예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했다.

세계 최대 마약 코카인 생산국으로 꼽히는 콜롬비아 역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조준경 안에 들어가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정부에 이은 '다음 타깃'으로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정부를 암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트로 대통령을 "불법 마약 수장"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0월 페트로 대통령과 그의 가족, 측근을 제재 명단에 올려놨다. /연합뉴스

## "가자지구 폭우·강풍, 주민 인도주의적 위기"

### 11명 사망, 저체온증으로 영아 숨져

일주일간 이어진 폭우와 강풍 때문에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BBC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저체온증으로 영아 1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폭우와 강풍으로 건물이 붕괴하면서 최소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은 가자지구의 밤 기온이 7도까지 떨어진다면서 어린이들이 저체온증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난민 숙소가 얇은 방수포와 임시 목재 구조물로 지어져 추위와 강풍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도 악천후 탓에 가자지구 전쟁 기간 손상된 건물의 붕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인도적 지원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휴전 이후 구호물자 반입에 제한이 없다면서 충분한 물자가 지원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가자지구 구호물자 배송을 관리하는 이스라엘의 국방부 산하 기구 코가트(COGAT)는 하루 600~800대의 구호 트럭이 가자지구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휴전 이후 텐트와 방수포 31만개가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 구상에 따른 1단계 휴전에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산발적인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북극곰 국제기구(Polar Bears International)가 17일(현지시간) 공개한 사진. 캐나다 매니토바주 처칠의 허드슨 만에서 어미 북극곰과 새끼 두 마리(그중 한 마리는 어미가 입양한 새끼)가 함께 있는 모습. /AFP=연합뉴스

## 눈밭 위 모성애…어미 잃은 아기곰 입양한 북극곰

### 캐나다서 포착…한마리는 새식구

캐나다에서 어미 잃은 새끼를 입양해 친자식과 함께 돌보는 북극곰이 포착됐다고 AFP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 세계적으로 희귀하게 발견되는 북극곰의 입양 사례는 '북극곰의 수도'로 불리는 캐나다 마니토바주 허드슨만 해변 도시 처칠에서 발견됐다. 처칠은 세계 북극곰의 약 50%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캐나다 연구진은 지난 봄 출산 후 지내던 굴에서 나오는 한 어미 곰과 새끼 곰 한 마리를 발견해 이들에게 개체군 연구를 위해 부착하는 표식을 달아줬다.

연구진은 지난달 이들을 다시 발견했는데 어미 곰 옆에는 또 다른 새끼 곰 한 마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새로 발견된 새끼 곰에는 개체를 구분할 수 있는 별다른 표식이 없었다.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 소속 과학자 에번 리처드슨은 "데이터를 다시 살펴본 결과 어미 곰이 새끼를 한 마리 입양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지난 45년간의 북극곰 연구 기간 입양 사례가 발견된 것은 13건에 불과할 정도로 이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이 촬영한 영상에는 새끼 곰들이 눈밭을 탐색하고 어미 곰은 그 뒤에 서 있었으며, 한 새끼 곰이 다른 새끼 곰과 함께 가기 위해 서둘러 달려가는 모습 등이 잡혔다.

다만 연구진은 입양된 새끼 곰을 낳은 '친모' 북극곰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GPS 데이터를 보면 현재 북극곰 가족들은 해빙으로 이동한 상태다. 이곳에서 새끼 곰들은 어미가 사냥해 온 물개를 먹으며 사냥 기술을 점차 익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두 새끼 곰은 대략 생후 10~11개월로 추정되며 앞으로 1년 반 정도 어미와 함께 지낼 것으로 보인다.

리처드슨은 "어미 곰이 자신이 출산하지 않은 새끼 곰을 돌보고 있고, 새끼 곰이 살아남을 기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은 정말 훈훈한 일"이라며 "암컷 북극곰들은 모성 본능을 타고났다. 정말 훌륭한 엄마들이다"고 칭찬했다. /연합뉴스

## 日도쿄전력, 가시와자키 원전 내달 20일께 재가동 추진

일본 도쿄전력이 혼슈 중부 니가타현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자력발전소(이하 가시와자키 원전) 6호기를 내달 20일께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등이 18일 보도했다.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가 이달 하순 가시와자키 원전 재가동을 용인한다는 뜻을 정부에 전하면 연내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재가동에 필요한 설비 검사 확인을 신청할 방침이다.

하나즈미 지사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가시와자키 원전 재가동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

가시와자키 원전에는 원자로가 모두 7기 있으며, 이번 재가동 대상은 6호기 하나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사고 이후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은 처음이 된다.

닛케이는 "원자로 가동에는 일반적으로 3주 정도 걸린다"며 "가동 후에는 출력을 단계적으로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 | | | | |
|---|---|---|---|---|
| 시내지국 | · 중앙지국 222-8171<br>· 산수지국 224-4188<br>· 학운지국 673-6836<br>· 화정지국 372-9140<br>· 금호지국 376-7153<br>· 풍암지국 603-0311<br>· 노대지국 674-3581 | · 상무지국 453-2554<br>· 광천지국 374-2120<br>· 진월지국 676-2726<br>· 봉선지국 673-6836<br>· 백운지국 673-0123<br>· 두암지국 266-1920<br>· 농성지국 362-4102 | · 유동지국 222-8171<br>· 운암지국 529-3548<br>· 용봉지국 261-1503<br>· 신가지국 954-1420<br>· 양산지국 574-3745<br>· 하남지국 951-9954<br>· 운남지국 952-1687 | · 오치지국 261-9461<br>· 문흥지국 261-9462<br>· 일곡지국 573-3200<br>· 첨단지국 971-7374<br>· 치평지국 371-9584<br>· 수완지국 955-0451<br>· 광산지사 944-0993 |
| 지방지사 | · 목포지사 061)270-8689<br>· 동목포지사 061)278-0740<br>· 남목포지사 061)245-3797<br>· 신안지사 061)980-8300<br>· 순천지사 061)746-1600<br>· 여수지사 061)651-6433 | · 나주지사 061)335-0005<br>· 광양지사 061)793-6800<br>· 구례지사 061)782-4696<br>· 담양지사 061)383-5566<br>· 곡성지사 061)362-5746<br>· 고흥지사 061)832-6290 | · 보성지사 061)852-6644<br>· 화순지사 061)373-7795<br>· 장흥지사 061)863-6800<br>· 강진지사 061)432-8899<br>· 해남지사 061)535-5849<br>· 영암지사 061)473-7151 | · 무안지사 061)453-3645<br>· 함평지사 061)322-0882<br>· 영광지사 061)353-5133<br>· 장성지사 061)394-3636<br>· 완도지사 061)555-0134<br>· 진도지사 061)542-4330 |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